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627.26 (-57.11)		812.41 (+5.6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4.091 (+0.066)		1359.90 (+12.60)

널뛰는 환율에 환차손 덮쳐… ETF 반토막 ‘쓴맛’ “메가특구 특별법 노사가 함께 논의”

김영훈 장관 ‘사회적 대화’ 제안

美 증시에 데인 서학개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SOXL)를 보유 중인 직장인 박모씨(32·여)는 7월 초 217.55 달러였던 종가가 두 달여 만에 121.82 달러로 떨어지며 달러 기준으로만 44% 손실을 봤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같은 기간 1548원에서 1338원으로 13.6% 떨어지면서 환차손까지 겹쳤고, 원화로 환산한 손실률은 51.6%까지 불어났다. “주가만 보면 절반 정도 잃은 셈인데, 환율까지 감안하면 원금의 절반이 넘게 사라진 셈”이라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원화 강제)가 해외 투자 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미국 주식과 채권 등 주요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원화 환산 시 발생하는 환차손까지 수익률을 깎아내리면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 IBro)에 따르면 3분기(7월 1일~9월 14일)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 5종목의 달러 기준 수익률은 -26.7%였다. 이들 종목을 원화로 환산하면 기종평균 손실률은 -35.9%까지 벌어진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매가기준율)은 1548.4원에서 1346.4원으로 202.0원(-13.1%) 떨어지면서, 원화 기준 손실 폭이 9.2%포인트 더 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순매수 1위 SOXL은 달러 기준 53.5% 하락했고, 환율 효과가 더해지며 원화 기준 손실률은 59.6%까지 벌어졌



李 대통령,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4일)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왼쪽사진)·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16일까지

환율 하락, 해외투자 시장 ‘복병’
美 주식매수 Top 5종목 수익률 -27%
원화환산 가중 평균 손실률 -36%
이달 6.5억 달러 매수 ‘매수 주춤’
증권가, 환율 1310원선 하락 가능성

다. 순매수 2위 알파벳도 사정은 비슷하다. 달러로는 3.3% 하락에 그쳤던 손실이 원화로서는 15.9%까지 다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한편 상장 이후 줄곧 상승세를 탄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는 지난 주까지 원화 기준으로도 근소한 흑자(0.65%)를 유지했지만, 이후 환율 하락분을 다 상쇄하지 못하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원화 기준 6.4% 손실로 돌아섰다.

서학개미들의 매수세도 주춤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1~14일(조화일 기준) 6억5438만달러(8811억원) 가량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서학 개미들이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46억4241만달러와 19억6234만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자산가치도 톡 떨어졌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7월 1일 1905억달러에서 이달 11일 1880억달러로 1.3% 줄어드는데 그쳤다. 그러나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보관금액의 원화 가치는 약 295조원에서 252조원으로, 43조원(-14.7%) 급감했다.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1310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반대로 달러 강세와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회피를 부추겨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전날 리포트를 통해 “(지난 주)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와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에 힘입어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짚으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 예상 밴드로 1310~1370원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실적 = 연임’ 공식 깨졌다… 은행장 세대교체 화두

‘사상 최대실적’ KB금융, 회장 교체 주요 은행장 5곳도 연임 임기 종료 신한 정상혁, 재임 맨 세번째 임기 하나 이호성, 실적만 보면 ‘연임’ 무계

KB금융그룹이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세대교체’를 선택하면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들의 거취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변화’와 ‘세대교체’가 화두로 떠올라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한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제외한 4명은



이한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2025년 취임해 첫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통상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첫 임기 동안 실적과 조직 안정성을 입증한 행장에 연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올해는 다르다. KB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직 회장의 연임 대신 세대교체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적만으로 연임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 이한주, ‘세대교체’ 기준 넘을까

이한주 국민은행장의 임기 여부는 실적 외에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역량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근 차기 회장 후보는 회장이 모든 권한을 쥐기보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조직을 강조했다. 세대교체도 단순한 연령 기준이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2025년 1월부터 국민은행을 이끌어온 이 은행장은 2025년 말 순이익 3조862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3조2518억원) 대비 18.8% 성장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2조2254억원으로 끌어 올리며 전년 순이익의 3분의 2를 달성했다. 이 행장은 취임 이후 디지털 전환과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KB AI Dev 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전사적인 AI 활용 기반을 확대하며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근 차기 회장이 AI를 KB금융의 핵심 경영과제로 꼽은 것은 연임에 긍정적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이 대통령 “투르크 철도 현대화 사업 韓기업 참여 기대…선박 공동 건조 확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목소리 많이 듣고 공감하며 일할 것”
/사진 뉴시스

▲오늘부터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접수…별도 철회 기간은 없어
▲조국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사퇴해야…검찰개혁 정반대 인물”

▲여야,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1주 택’ 놓고 공방
▲박지원 “한동훈 청문회 될 것…못된 특수 검사 티 못 버려”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